착색 및 출하기 과피착색은 1월 하순경에 90%이상 착색되며, 품종 육성지인 오이따현(大分縣 津久見市)에서의 노지재배시 성숙기는 2 3월로 청견과 비슷하거나 약간 늦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해에 따라서는 산함량 감소가 빨라 1 2월에 수확 출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표 4 참조).

4월 이후에는 바람들이 현상(알알이 건조증)이 발생되기 쉽다.

3. 재배상의 유의점

본 품종은 식용가능시기가 2월 이후인 만생감귤류로 노지에서 청견품종보다 당도가 높고, 식미가 좋지만 수세가 약하고 후기낙과가 심하므로 수량도 낮다. 9 10월 비대성기에 과정부에 열과가 발생하므로 토양관리 및 적과에 유의한다. 수세가 약한 편이므로 도입하는 경우 수세강화를 위해 강세대목 이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해거리는 만감류 중에서 보통정도임). 완숙기가 3월이므로 수상월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재배해야 한다. 궤양병에 대한 저항성이 있지만 어린 나무에서는 가시 제거를 철저히 하는 등 궤양병이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 준다.

시설내 보조가온 재배시 적응성

시설재배 적응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저 15℃를 유지하는 보조가온 재배시 수세 및 생육과 수량성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6년생의 어린 나무로 더 검토가 필요함), 시설내에서도 생육이 약하고 수량성도 부지화, 앙콜 품종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과실품질은 노지재배시보다 평균과중이 커지고 당도가 13도 이상으로 높아져 품질이 양호해지나 최근 유망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부지화 품종보다는 당도가 낮다(표 6 참조).

니시노가오리(西之香)

1. 육성 경위

일본도 년내에 수확이 가능한 감귤류는 온주밀감이 대부분으로 품종구성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온주밀감과 다른 특성을 갖는 조생 감귤류 선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66년 과수시험장 오끼쯔(興津)지장(현 과수시험장 감귤부 · 오끼쯔)에서 만생감귤류 중 품질이 우수한 청견(淸見) 품종을 어머니로 하고, 오렌지 품종 중에서 비교적 숙기가 빠른 트로비타오렌지를 재차 교배(交配)하여 육성한 탄골류 교잡종이 니시노가오리 품종이다.

이 교잡품종은 과수시험장 구쯔노쯔(口之津)지장(현 과수시험장 감귤부 · 구쯔노쯔)에 정식하고 1982년에 처음 결실시켰다. 그 후 수년간의 조사결과에 의해 1차 선발되었고, 1992년 4월부터 구쯔노쯔 20호로 일본 각 지역에서 지역적응성 · 특성검정시험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유망하다고 판단되어



▲ 니시노가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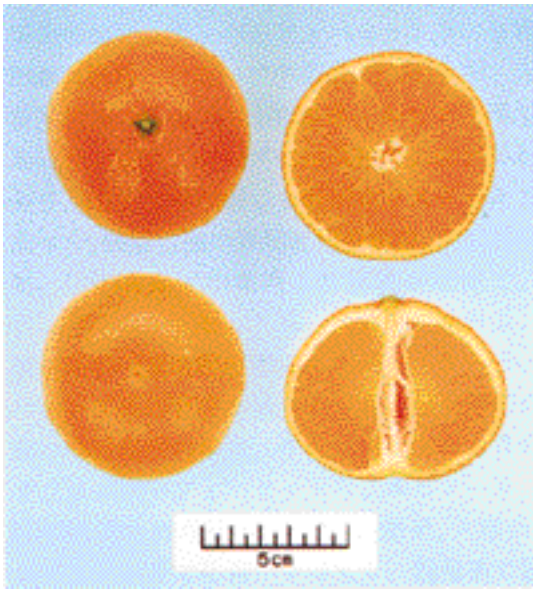
1997년에 니시노가오리(西之香)로 품종등록을 신청하였다. 니시노가오리라는 품종명은 이 품종의 갖고 있는 특징인 서일본의 비교적 건조한 지역에 적합하다는 점과 오렌지 향기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2. 주요특성

나무특성 수세가 약한 편이고, 나무모양은 개장성(開張性)이며 재배장소에 따라 늘어지게 자라는 경우도 있다. 잎이 소엽이고 결실성은 보통정도이다.

창가병에 강하지만 궤양병에는 약간 약하다. 트리테자바이러스(CTV)에 걸리기 쉽지만 스템피팅 발생은 적은 편이다(표 1 참조).

과실특성 과실이 100 180g으로 만감류 중에서는 열매가 작은 편이다. 과실모양은 편구(扁球) 구형(球形)이고 간혹 과경부가 돌출되어 병귤과 같이 꼭지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 니시노가오리의 과실

〈표 1〉 니시노가오리의 나무특성과 병해 발생정도(1996)

장 소 별	나무모양	수 세	성숙기(월.순)	궤 양 병	창 가 병
興 津	-	약함	1. 중	적음	없음
靜 岡	장원형	약함	12. 하	없음	〃
愛 知	원형	약함	1. 중	적음	〃
三 重	원형	약함	12. 중하	많음	〃
和 歌 山	-	-	12. 하	없음	〃
廣 島	원형	약간 약함	12. 중	적음	〃
香 川	원형	보통	1. 상	없음	〃
愛 媛	편원형	약간 약함	12. 하	없음	〃
高 知	-	보통	12. 하	-	-
福 岡	-	약간 약함	1. 중	-	-
佐 賀	원형	약간 약함	1. 하	없음	없음
口 之 津	원형	보통	12. 중	적음	〃
長 崎	-	보통	1. 중	적음	〃
熊 本	원형	보통	12. 중	적음	〃
大 分	편원형	약함	1. 중	없음	〃
宮 崎	원형	보통	12. 하	적음	〃
鹿 兒 島	원형	아주 약함	2. 하	-	-

과피색은 등색(橙色) 적등색(赤橙色)이고 과피가 얇으며 과실표면은 편평하고 매끄러우며 유포(油胞)가 눈에 띈다. 청견 정도의 오렌지 향기가 있다.

박피성(껍질 벗기는 정도)은 보통정도로 어버이 품종인 청견이나 트로비타오렌지보다 양호하다.

과육은 오렌지색이고, 속껍질(양낭피)이 얇으며 먹기 쉽다. 육질은 유연(柔軟)하고 과즙(果汁)이 많다.

과즙 당도는 11 13도, 산함량은 0.7 1.0% 정도로 산함량이 다른 만감류 품종보다 낮은 특성이 있다. 종자수는 0 5개 정도로 적다. 씨가 안 생기는 단위결과성이 강하다(표 2 참조).

착색 및 출하기 일본에서 착색은 11월 상순부터 시작되어 12월 상·중순에 완전히 착색된다. 수확기는 12월 하순에서 1월 상순이다(표 1 참조).

3. 재배상의 유의점

수세의 유지 강화 수세가 약하므로 비배관리, 적정착과에 유의하여 수세의 유지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강세대목을 이용하여 수세를 강화시키려는 경우가 있으나 이 품종은 고당도 품종이 아니므로 품질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쉽다.

궤양병에 약한 편이므로 재배시 주의

하우스재배시 열과에 주의

새로운 만감류 품종도입 검토시 주의사항

현재 일본에서 우량한 만감류로 알려지고 있는 세또까 품종은 구쯔노쯔 19호이고, 이번에 설명하는 니시노가오리 품종

〈표 2〉 니시노가오리의 과실특성(1996)

장 소 별	분 석 일 (월.일)	과실무게 (g)	과형 지수♪)	당 도 (°Bx)	산 함 량 (%)	종 자 수 (개/과)	박 피 성
興 津	1.19	154	114	12.5	1.08	1.8	약간 곤란
靜 岡	1.16	178	106	9.6	0.72	5.0	쉬움
愛 知	1.24	108	107	13.6	1.15	4.0	보통
三 重	1.22	132	110	13.8	1.07	3.6	곤란
和 歌 山	1.19	175	116	12.9	0.81	3.5	쉬움
廣 島	12.22	182	121	11.1	0.72	0.6	쉬움
香 川	1.17	158	107	12.2	0.79	0.3	보통
愛 媛	12.19	171	114	12.5	0.99	0.7	약간 쉬움
高 知	12.20	185	114	12.9	0.97	4.1	보통
福 岡	1.17	154	96	11.3	0.79	5.4	쉬움
佐 賀	1.22	167	117	11.1	1.00	4.4	보통
口 之 津	12.20	131	131	12.3	1.03	3.4	쉬움
長 崎	1.19	163	110	12.4	1.02	11.0	보통
熊 本	1.24	141	107	11.1	0.72	8.5	쉬움
大 分	1.16	135	120	12.6	0.84	0.0	약간 곤란
宮 崎	1.18	226	108	13.3	0.97	10.3	보통
鹿 兒 島	2. 8	183	113	12.6	1.00	-	쉬움

#♪) 과형지수(과실횡경÷과실종경×100)가 높을수록 과실이 편평한 것임

은 구쯔노쯔 20호이며, 하루미 품종은 오끼쯔 44호이지만 이들 품종이 개발된 이후에도 구쯔노쯔 계통은 30호가 넘어섰고, 오끼쯔 계통도 50호가 넘어섰다.

이들 계통들도 앞으로 품종등록이 되고 새로운 유망 만감류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지만 정말 소비자들에게 한라봉과 같이 경영적으로 판매가 되는 품종으로 정착될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품종도입을 너무 서둘지 않고 서서히 진행중에 있으므로 제주에서도 너무 조급하게 품종을 도입하여 재배를 하지 말고 일본의 동향, 국내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실패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지금까지 개발된 만감류 신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품종은 한라봉, 청견 등 몇 가지 품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 신품종이라고 무

조건 도입을 하면 나중에 다른 품종으로 다시 갱신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감류 품종은 각각의 특성이 다르고 그 품종 고유의 특성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소비확대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즉 어떤 만감류 품종을 도입해도 그 품종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면 시장에서의 소비자 반응은 차가울 것이다.

또한 새로운 품종에 대한 소개를 할 때에는 품종을 육성한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를 위주로 품종을 설명하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부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승산이예감(勝山伊予柑)



▲ 승산이예감

1. 육성경위

일본의 송산시(松山市 [illegible]口光雄氏)에서 1974년에 보통온주를 중간대목으로 하여 궁내이예감을 고접하였다. 1976년에 그 중 한가지에 대과이며 착색이 빠르고 과형이 좋고 과실표면이 매끈한 과실이 착과된 것을 발견, 그 후 관찰을 계속하여 1980년에 탱자대목에 아접을 시행, 묘목을 양성함과 동시에 1982년부터 에히매(愛媛)과수시험장에 특성조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가지변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1986년 11월에 「勝山伊予柑」으로 품종등록하였다.

2. 주요특성

나무 승산이예감의 나무특성은 궁내이예감(宮內伊予柑)과 거의 마찬가지로 결